

##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하 정 희†

한양대학교

본 연구는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대학생활에서의 적응양상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충북, 경북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 11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한국대학에 입학하게 된 동기와 대학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질적 면접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주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유학생들의 대학입학 동기는 (1) 미래목표를 위한 준비 (2)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 (3)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동경으로 크게 구분되어 나타났다. 한국의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내용은 (1) 학업에서의 스트레스 (2) 경제적인 스트레스 (3)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 (4) 정서적인 스트레스 (5) 미래와 취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6) 학교의 제도에 대한 불만의 총 6개 범주로 나뉘었고, 더 구체적으로 11개의 하위범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학교와 상담기관의 역할, 제도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 그리고 중국유학생 당사자의 노력 등에 대해 논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중국유학생, 대학생활 적응

\*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이명옥, 김정내, 양명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하정희,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상담센터, (426-79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 3동 1271  
Tel : 011-366-6777, E-mail : hajung366@hanmail.net

중국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유학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한중문화교류협정이 체결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96년대 초까지 300 여명이던 한국의 중국유학생들은 최근 2006년도 자료에 따르면(교육인적 자원부 홈페이지, 2006) 19,160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많은 수의 중국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며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국학생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적지 않을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들은 중국과 한국의 교육체제와 내용 또는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적응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일은 그 자체가 적응에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이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란 중국학생이 체제가 전혀 다른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사회주의 교육을 받고 그 체제에서 성장했으며 중국 전통문화와도 격리된 상황에서 성장해왔다(Kurtenbach, 1996). 그런 그들이 자유분방한 자본주의 사회와 전통적인 한국의 가치관이 함께 공존하는 한국사회, 그 안에서도 한국의 대학생활에 적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대학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 내에서의 대인관계나 과외 활동 등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학교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이다(Baker & Siryk, 1984). 따라서 대학에서의 적응은 대학생들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제이다. 특히 청년 후기나 성년 초기에 처한 대학생의 생활적응 문제는 일반적으로 적응의 위

기라고 할 만큼 발달상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 이유를 Erikson(1963)의 관점에서 보면,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역할혼미의 와중에 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감당하기 보다는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정체감이 미형성 되어 있거나 형성되어 있더라도 확고한 사회적 역할이 제공되지 않음으로서 불안정감과 혼동을 느끼기 쉬운 시기라는 것이다(한덕웅, 전경구, 이창호, 1991, 재인용). 그런데 이민자나 난민들과 같이 문화가 바뀐 사람들은 이러한 시기의 발달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더욱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과 문화가 바뀜으로서 오는 정체감의 혼란이 청년기에 부딪히는 자신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혼란감과 맞물리면서 심각한 정체성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발달 단계에 따른 어려움이 이문화 적응상의 어려움과 겹쳐지면서 개인적인 문화적응 역시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Tobin & Friedman, 1984; Yeh, 2003; 조영아, 전우택, 2004, 재인용).

중국유학생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유학생들이 외국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알아봄으로써 이를 중국유학생들의 경우에 적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유학생들은 외국생활을 하면서 다른 외국 체류자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비슷한 영역의 문제를 겪게 될 뿐 아니라,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민간외교관”이라는 역할에 대한 부담감 또한 느낀다. 또한 그들은 학교적응, 진로고민, 일상생활 스트레스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홍기원, 2002; Redmond, 2000), 비슷한 또래의 다른 학생들이 겪는 발달상의 문제까지도

함께 겪어야 한다(Furnham & Bochner, 1986). 따라서 유학생들은 또래의 자국 학생들보다 많은 사회문화적인 적응의 문제를 겪는다고 볼 수 있다(Ward & Kennedy, 1993).

현재 한국대학에 다니고 있는 중국유학생들은 대학생활 동안 급격한 문화적 차이를 절감하게 되며 이 시기 동안에 그들은 한국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심리발달상의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된다.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한국인 친구가 없는 것, 고향에 대한 향수, 고독감, 생활비 부족, 한국어와 영어 능력 문제, 정서적 지지가 없는 것 등이라고 하였다. 또한 적응 초기를 벗어나 유학생생활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한국어 능력, 사회로부터의 격리, 음식습관, 고독, 예절, 의사소통 문제, 정보의 부족, 기후문제에서는 호전을 보이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변함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이들은 문화적인 분야, 학업분야의 문제에는 호전을 보인 반면에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등에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 가장 정도가 심한 어려움은 대인관계 형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삼화, 2005; 엄혜경, 2003; 허춘영, 김광일, 이장한, 1999). 따라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때때로 그러한 경험이 개인의 적응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유학생들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자원은 한국인의 경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재우, 2005). 중국유학생들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장해 온 중국 유학

생들이 위계질서나 상하관계, 남존여비, 예의 존중을 중요시하는 한국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것이나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자기네와는 다른 한국인의 생활 태도 등으로 한국인과의 교제가 힘들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타국에 와서 행동을 조심하는 중국인 특유의 행동양식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허춘영, 김광일, 이장한, 1999). 이렇듯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적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다양하며 이 가운데에서도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두드러진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유학생들의 부적응적 결과로 인한 다양한 교육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유학생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아직도 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유학생들의 생활에 대해 예전보다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들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중국유학생들의 적응상의 문제점이나 이에 대한 분석,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현재까지 중국유학생들과 관련된 연구는 대학생활과 관련된 측면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문화적응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것 역시 문화적응의 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에 문화적응은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라고 정의하였다(Redfield, Linton & Herskovits, 1939; 정진경, 양계민, 2004, 개인용). 문화적응은 원칙적으로는 중립적인 용어로서 상호작용을 하는 두 집단 모두에 해당되나, 실제적으로는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변화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Berry, 1990).

Berry(1986)는 문화적응의 상태를 두 가지 차원의 네 가지 결과로 범주화하고 문화적응에 대한 다양한 측정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를 용이하게 하였고 많은 호응을 받았다. 여기서 두 가지 차원이란 먼저,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둘째,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이들 두 가지 차원을 함께 고려하여 이중문화에 대한 적응양상을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 분리(separation), 격리 혹은 해체(marginalization or deculturation)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한편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중문화에 대한 적응양상을 연구한 허춘영과 김광일(1997)은 이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네 가지 양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첫째는 ‘동화하는 학생들’로 이들은 한국의 가치관, 생활방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한국문화에 접근하고 동화해가는 학생들이다. 둘째는 ‘전통적인 학생들’로 이들은 한국사회의 단점을 비판하며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중국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학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유학 후 귀국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실용주의적 학생들’로 이들은 두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학생들로, 두 문화 가운데 편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하면서 적절히 살아가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통합’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문화를 통합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취사선택 한다는 점, 두 문화 모두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르다. 넷째, ‘갈등이 많고 격리된 학생들’은 두 문화 모두에 부정적이며 어느 문화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적응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로 설명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체류기간에 따라 적응하는 양상이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입국초기에는 ‘전통적인 학생들’과 ‘동화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전통적인 학생들’은 감소하며 이런 초기의 적응과정을 거쳐 ‘실용주의적인 학생들’과 ‘갈등이 많고 격리된 학생들’로 변해가는 양상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Berry(1986)가 보고한 이민의 적응양상과 유사함을 나타내어, 중국유학생 역시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이중문화에 대한 문화적응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중국유학생들이 느끼는 차별과 대처방식이 문화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김재우(2005)의 연구에서는 그들이 차별을 많이 지각할수록 사회적 창조와 경쟁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문화적응의 한 방법으로서 ‘사회적 경쟁’과 관련된 대처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국유학생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의 대부분이 사회학이나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생활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실례를 바탕으로 했기 보다는 주로 양적인 접근방법으로 그들의 생활을 파악하여 해석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문화적응과 관련된 연구도 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더욱 더 활발하게 연구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유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생활하는 한국 학교생활에서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 또한 문화적응과 관련된 하나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

는 개인적인 기대와 어려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장애요인들에 대해서 중국유학생들의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적응적 제도 및 정책마련과 더불어 심리적인 도움제공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중국유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에 관심을 가짐으로서 중국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학의 입장에서도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유학생들의 원만한 한국대학생활 적응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더 많은 중국학생들이 국내대학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대학의 국제화, 세계화에 커다란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외국유학생들의 유입은 비단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국내학생들의 중국유학생들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국내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울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유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다양한 부문을 이해하게 함으로서 우리나라를 더 널리 알릴 수 있으며 중국유학생들을 한국에 대한 지지 세력으로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중국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은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중국유학생들이 처해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그들의 경험을 통한 적응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였으며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둘째, 중국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겪는 스트

레스는 무엇인가? 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에 이루어진 중국유학생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된 연구결과들과 더불어 중국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상의 다양한 어려움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적응적 제도 및 정책마련과 더불어 심리적인 도움제공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과 충북지역, 경북지역에 위치한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유학생 11명이다. 전체 참여자 가운데 남학생은 5명, 여학생 6명 이었으며, 전체 연령은 22세부터 30세까지로 25세 이하가 3명, 25세부터 30세까지가 8명이었다.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 3명, 3학년 1명, 4학년 4명, 대학원생 석사과정 3명이었다. 한국에 입국한 시점을 살펴보면, 1년 6개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데, 입국한지 1년 6개월 된 유학생이 3명, 2년에서 3년까지의 학생이 5명, 4년에서 5년까지의 학생이 3명이었다. 참여자 전원에게 본 연구자가 직접 연락하여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응함으로써 면담이 이루어졌다.

###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하여 중국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중국유학생 11명 가운데 6명은 본 연구자와 직접 1:1 개인 면담을 하였고, 다

른 5명은 상담심리 전공 석·박사 학생들을 통하여 각각 1:1 개인 면담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접’으로 면접자기 질문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서 ‘비구조화된 면접’처럼 대화 형식의 면접을 진행하였다(이용숙, 김영천, 1999). 질문의 내용에는 인적사항과 대학에 입학한 동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Baker와 Siryk(1984)이 제안한 대학생활 적응 관련한 4가지 차원인 학업 상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 등의 차원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였다. 여기에 중국인들의 문화적응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에 추가하였고, 또한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영역 별로 연구문제를 구상하여 적합한 질문들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 “한국친구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일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당시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느꼈습니까?” “한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학과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한다면/열심히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이다. 면담진행 중에는 각 질문의 대답에 대한 더욱 더 풍부한 설명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후속질문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면담을 진행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면접기법에 있어서 면접자는 채서일(200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립성, 공정성, 자연스러움, 일상회화의 분위기 조성, 친절, 진지함이 필요하였다. 또한 학생의 질문에 설명이 가능하고 정확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응답자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면담은 학교상담실이나 찾집에서 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수집 기간

은 2007년도 1월에서 2월까지 약 2개월 정도에 걸쳐 면담과 녹음자료가 수거되었다. 면담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면담 중에 주요 내용이나 참여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면접 분위기 등의 특이할 만한 사항은 질문지에 기록해두었다. 녹음 내용은 누락된 부분 없이 기록하였고,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이름이나 지명은 삭제하고 원고 위쪽에 번호를 붙여서 참여자를 구분하였다. 면접분량은 개인 당 A4용지 14장에서 30쪽이었고 전체 분량은 185쪽이었다.

### 분석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귀납적으로,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연구에서 나온 개념이나 가설을 적용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라, 면접자료 자체에서 주제별 공통점과 결론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이는 재한중국어 대학생들이 처해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자신과 그들의 주변세계에 대한 경험, 개념, 지각, 이해 등에 내재해 있는 의미와 경험을 이해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분석을 위한 전사(transcription)시에는 개별적으로 심층면접하여 대화한 내용들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느낌이나 생각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였다. 그 다음으로 연구문제의 각 영역과 관련된 면접자료를 정리하여, 영역별로 개념과 범주로 유목화 하여 원자료를 축약하는 코딩(coding)을 실시하였고,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의미한 주제를 발견하는 주제분석 방법(Patton, 1990)을 적용하였다. 이는 자료가

수집될 때까지 어떠한 자료도 미리 약호화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료에 근거하여 약호화하며 주제의 이름을 개발하고 부여하는 방법이다. 주제분석방법은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주제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자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섭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개념과 의미를 생성해냄으로서, 재한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유학생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적, 주관적 의미를 생생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본 연구자와 상담심리 전공 박사과정생 1명, 석사 과정생 1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세 사람은 각자 개별 면접 자료를 읽고 면접 자료를 영역별로 개념과 범주로 유목화하여 원자료를 축약하는 코딩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석을 한 후에 세 사람은 3개월에 걸쳐 모임을 가지면서 차이가 나는 코딩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총 4회의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된 코드북을 작성하였고 이 코드북에 근거하여 개별 면접 자료에 대한 재코딩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 통일된 코드북의 각 항목에 각 사례의 해당 내용을 적었으며 유사한 내용끼리 묶고 분류하는 비교분석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전체 자료를 총 15쪽 분량으로 축약하였고 이 자료를 해석의 기초 자료로 삼았다. 이로써 일차적인 구조를 만들었으며 각각의 범주의 하위 내용들을 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생성된 구조와 도출된 개념들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최종적인 구조를 이끌어 내었다.

## 결 과

범주화 결과 재한중국학생들의 한국대학 진학 동기는 크게 미래 목표를 위한 준비,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동경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의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내용은 크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경제적인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정서적인 스트레스, 미래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학교제도에 대한 불만 등의 범주로 나타났다. 각각의 요인들은 다시 하위범주로 나누어졌으며,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로 하위범주를 더 상세히 개념화하였다(부록 참고).

### 한국대학 진학 동기

#### 미래의 목표를 위한 준비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중국학생들은 대개 목표가 뚜렷한 경우가 많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에서 대학을 나와 그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유학을 온 경우이며, 본 연구에 참여한 11명의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7명이 직장생활을 그만 두고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이들의 전업은 교사, 은행원, 회사원 등이었으며, 중국에서의 일을 그만 두고 한국에 온 만큼 대체로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 회사에서 2년 동안 취직했어요. 요즘엔 송도에 한국회사가 되게 많은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유학 가면 한국으로 가야겠다... 그 다음에 유학 갔다 오면 나중에 한국회사 취업해도 되고, 아니면 중국에 한국과의

무역회사 취업하구요. 그러기 위해선 한국에서의 지식이 필요해요.” (4학년 남학생, 27세)

중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곧바로 한국대학에 유학을 온 경우에는 대개 국제어학원 등에서 6개월-2년 정도 언어를 먼저 습득하고 나서 한국대학에 입학하는 예가 흔하다. 이들의 경우에도 학업에 대한 동기형성이 대체로 분명하였으며, 미래에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

한국 대학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은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에 대해 낯설지 않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 가운데는 그들의 친구들이나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이미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할머니가 한국인인 경우여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오고 싶은 생각을 한 학생도 있었으며, 오빠가 한국여자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먼저 한국유학생생활을 했거나 한국에서 일을 한 경우에는 더욱 더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에선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업 갖고 있어서... 저는 크게 나오기 싫었는데, 아빠는 한국 왔다 갔다 하고 잘 알고 그러니깐 유학을 권한 거죠. 아버지가 한국이 있으면 다른 나라도 어떻게 사는지 잘 알게 된다고.. 어릴 때 공부하라고 그래서 왔거든요.” (대학원 여학생, 27세)

####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동경

최근 중국에서는 각종 TV나 매체의 영향으로 소위 ‘한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은 한국의 배우나 가수를 통해서 한국을 처음 접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된 동기들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임을 알 수 있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어 배우고 싶은 생각 있었어요. 한국은 중국보다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좀 더 좋고...” (4학년 여학생, 27살)

“한국의 드라마하고... 한국배우들 중국에서 너무 유명하니깐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한국드라마 중국에서 방송 많이 하고, 문화 알고 싶어서 왔어요.” (2학년 남학생, 22살)

#### 한국의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 학업에서의 스트레스

중국유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그 가운데 크게 느끼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익숙하지 못한 한국어로 인한 스트레스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다. 하지만 한국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수업시간에도 교수님의 말이 빨라서 수업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필기를 해주지 않는 수업시간에는 더욱 더 힘들어한다. 특히 유학생생활 초기에는 대화는 잘 되는 편이지만



쓰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껴서 시험을 치르거나 리포트를 쓸 때, 팀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경우 큰 어려움을 느낀다.

“한 학기는 저도 힘들었죠. 특히 첫 학기에.. 팀 프로젝트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였죠. 나는 왜 그럴까...? 웬지 바보 같은 거 같고, 팀플 후에 메신저로 정보 나누다 보면 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컴퓨터에 입력하다가 보면 끝나... 그래서 항상 메신저로 함께 팀 프로젝트 하다보면 구경만 하고 끝나고.. 보다가 끝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팀 프로젝트로 메신저하자고 하면 잘 안 해요.” (대학원 여학생, 28살)

이러한 언어적 장벽은 학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연결되며 이는 그들의 주된 스트레스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학생들은 전공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성적이 나쁠 경우에 학업에 대한 의욕을 잃곤 한다. 전공에 따라선 한국어 외에 다른 외국어까지도 다루어야 할 경우에 이중 부담을 느끼기도 하며 자신의 실력에 대한 불만을 쌓아가면서 자신감을 잃게 된다.

“저는 나름대로 했다고 했는데 뭐 성과가 없으니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대로 졸업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부를 해도 성적이 계속 올라간단 그런 게 없어요.” (4학년 여학생, 27살)

또한 이들이 학업 영역에서 특히 스트레스

를 받는 이유 가운데에는 언어적 장벽뿐만 아니라 중국과는 다소 다른 커리큘럼이나 공부방법의 특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중국에 비해 응용학문을 많이 다루고 교재도 한국어 외에 영어교재를 많이 사용하므로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교 과정까지 중국에서 공부하고 온 이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기초지식의 내용 면에서도 한국학생들과 차이점을 발견하며, 이제까지 그들이 공부해오던 방법까지도 한국의 교육이나 시험 스타일에 맞게 적응을 해나가야 한다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한국에서는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깐 외워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애들은 A4용지 한 장 쓰고 뒤에도 또 쓰고.. 한국 애들은 글을 진짜 잘 쓰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어하고 한국어 차이가 있잖아요. 중국어는 함축적인 의미가 요약이 되는데... 우리는 한글로 그게 쉽게 풀리질 않아...또 한국에선 다양한 책도 많이 읽어야 하는데 우린 책을 잘 안 읽으니깐 어떻게 써야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대학원 여학생, 28세)

#### 경제적인 스트레스

대부분의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의 비싼 물가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 집에서 등록금과 용돈을 모두 받아서 생활하는 중국 유학생도 있지만, 집에서 학비를 지원해주는 학생이나 스스로 모든 것을 벌어야 하는 학생이나 상관없이 상당수의 중국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한다.

“보통 한국에 유학 온 중국인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환학생.. 그런 학생들은 한국에서 편하게 유학 생활할 수 있는 학생들 이에요. 두 번째는 그냥 유학생 이에요. 근데 집에 돈이 많아요. 돈이 있으니깐 여기서 공부하며 놀고 지내는 거예요. 제일 편해요. 세 번째는 우리처럼 유학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유학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 가장 어려워요.” (4학년 남학생, 27세)

이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국학생들은 학교 적응과 관련지어 볼 때, 학업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꼽고 있다. 또한 중국유학생들 가운데에는 중국에 있을 때는 아르바이트나 힘든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편한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와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엔 부모님이 돈 많이 줬어요. 진짜 많이 줬어요. 제가 지금은 학비, 이런 거 생활비를 다 혼자 내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돈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전 남자니깐, 스물 두 살인데 돈을 더 달래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돈벌어서 이렇게 생활비 내는 거예요. 학비도 모으고... 항상 돈 때문에 힘들어요.” (2학년 남학생, 22세)

####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제한중국유학생들의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살펴볼 때, 크게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

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화차이로 인한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중국학생들은 한국 학교에서 한국 친구들과 원만한 친구관계를 맺는 데 몇몇 특징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그들은 한국 친구들과 서로 언어나 공부를 도와주고, 한국문화를 가르쳐 주는 등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지게 된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성격특성이 인간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학 내 동아리도 주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타 다양한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가 많다. 반면에 이들 가운데는 동아리 가입을 원해도 아르바이트나 공부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동아리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았다. 이렇듯 중국학생들이 한국친구들과 친해지는 과정에서는 특히 유학의 초기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특성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국 친구를 사귀게 된다.

“공부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방법 없고, 한국어 공부만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한국어 잘 할 수 있어요.” (1학년 여학생, 22세)

이렇듯 도움을 주고받기 위한 인간관계를 편하게 생각하는 중국유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몇몇 중국 유학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전부인 인간관계를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이들이 한국학생들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그들은 단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한국학생들에게 불편한 몇몇 특성들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 친구라도, 도움을 따지지 않고 감정적으로 좋은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친한 친구는 자기와 생각, 가치관 등이 비슷하고 뭘 숨겨야 한단 생각이 안 드는 친구예요. 이 사람이 사람 사귀는데 생각이 너무 많거나 너무 이기적이거나 하면 친해지기 힘들어요.” (4학년 남학생, 30세)

“한국 친구들과 사귈 때 힘든 점은... 한국 친구들이 그런 식인 게 있어요. 친구랑 사귈 때 목적이 있어서... 아니면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귀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지 않는 게 좋아요” (4학년 남학생, 27세)

한편, 한국인 친구와 친해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문화차이 또한 중국학생들에게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많은 중국유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며,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대체로 이해해주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큰 갈등이 일어날 만한 것들은 드물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유학생 생활에서 느끼는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커다란 갈등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미묘하고 작은 스트레스들이 주를 이룬다. 유학생 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관심사가 한국학생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인 특성에서의 둘 간의 차이점을 인식

하게 되면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예를 들어 중국인의 언어 억양으로 인해 오해를 산다거나, 한국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중국학생들에게는 별로 재미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서 소소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문화 간 차이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은 그들이 한국학생들에게서 그들보다 심한 ‘give and take’ 식의 관계를 종종 발견했다는 점이다. 가령 함께 밥 먹을 때 각자 식사비를 내는 것도 그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문화이다. 그들은 한국학생과 깊이 있는 친구가 되기에 힘든 느낌을 갖기도 한다. 한 중국여학생이 나라 간 문화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례를 들고 있다.

“예전에 수업시간에 질문한 거에 답을 쓰는 게 있었어요. 중국사람 같으면, 만약 친구가 늦었으면 어떻게 하냐고. 중국 사람들은 그냥 “다음에 늦지 마!” 하고 써놓았더니 한국 친구들이 그게 너무 웃긴 가 봐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애들은 그럴 때 밥 사달라느니...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 사람들은 서로 밥 사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친구끼리 이번엔 내가 살 수도 있는 거고 재가 살수도 있는 건데... 겨우 늦었다고 밥 사달라는 게.... 그리고 뭐 부탁하면서, “야, 내가 밥 사 줄게 뭐 좀 해줘!” 그런 거 이해 못해요” (대학원 여학생, 27세)

또한 중국학생들이 한국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한국학생과 교수님들의 존댓말이다. 그들은 한국학

생들이 지나치게 선후배나 나이 차이를 강조한다고 느낀다. 한국 사람들은 존댓말을 ‘예의’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존댓말은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것이다. 간혹 교수님마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존댓말을 쓰는 경우에는 그런 공식적인 말투가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한국에 오자마자 그냥 선배들 만나서 ‘안녕! 하이!’ 이랬더니 기분이 안 좋아해요. 선배들 나에게 예의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중국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존댓말 연습하고, 다시 만나서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사했어요. 조금 힘들었어요.” (2학년 남학생, 22세)

이렇듯 한국학생들에게서 느껴지는 예의나 더치페이 등의 특성과는 대조적으로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학생들에게 독특한 집단주의적 특성 또한 발견한다.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학생들이 대체로 멍처 다니는 것 좋아하고 조별모임을 가질 때도 공부 외의 것 즉, 함께 놀고 밥 먹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불만을 호소하기도 한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이들 대부분의 중국 유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목적이 불분명한 이러한 팀 프로젝트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니깐 거의 모든 학과 학생들에게 그런 걸 느껴요. 많이 멍치는 거... \*\*과 학생들은 특히 멍치는 게 강해요. 타과 학생들이 오면 서로 경쟁상대로 느끼는 것도 같고... 애들이 서로 다 알면서도 타과라고 인사도 안하고 그래요. 우리가 인사해도 모르는 척 하고...” (대학원생 여

학생, 28살)

“한국 친구들은 단짜 이런 거.. 이유 없이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네. 혼자 다니면 왕따라 그러고. 뭐, 이런 게 되게 심한 거 같아요. 밥도 꼭 같이 먹어야 되고...” (4학년 여학생, 27살)

### 정서적인 스트레스

중국 유학생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는 중국인으로서 소외감과 무시 받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한다. 즉,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대학생들에게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한국대학생들이나 교수님이 자신을 무시한다거나, ‘중국’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이다. 그들은 상당수 한국 대학생들이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하고 중국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에 비해서 중국학생들은 한국학생들을 많이 좋아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에 대해 중국 유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국학생들이 따뜻한 마음 가지고 한국에 와서, 상처 많이 받았어요... 중국학생들은 한국학생들 되게 좋아하니깐 여기 유학 왔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유학하러 올 때는 중국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상처 많이 받아요... 중국학생들 무시하지 말구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혹시 중국에 휴대폰 있어요? 중국에 컴퓨터 있어요?” 한국 대학생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북한사람 이에요. 근데 중국 학생들은 안 그래요. 한국에 대해서 다 알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3학년 남학생, 27세)

이렇듯 중국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이 중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며 서운함을 표현한다. 더 나아가 많은 한국 대학생들은 ‘우리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농산물’ 등을 지나치게 나쁘게 몰고 가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이들은 중국의 농산물이나 물품 등 중국에 대한 비난이 들릴 때에 이를 자신에 대한 비난처럼 지각하면서 무시 받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지난번에 무슨 중국사건 있었잖아요. 근데 옆에 애가 “야, 중국 너무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괜히... 막... 제가 무섭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개네들이 나쁜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음식 못 먹겠어!”라고 할 때, 아니, 나는 맛있는데... 나는 잘 먹고 살았는데...” (대학원생 여학생, 28세)

“수업시간에 중국에 관한 그런 내용을 공부했는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교수님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중국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학과 수업 들어보니깐, 중국 비록 후졌지만,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거기 교수님들은 중국에 대해 뭐 좋은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과나 아니면 유럽 미국 쪽에서 공부하고 오신분들은 “중국은 영 아니더라... 70-80년대

그런 기억으로... 책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3학년 여학생, 26세)

다음으로 중국 유학생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스트레스로서 한국생활에서의 외로움을 들 수 있다. 중국유학생들이 특히 외로움을 느끼는 때는 한국에 처음 와서 적응해 나가야하는 시점이었다. 한국에 먼저 온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는 경우는 덜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낯선 환경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외롭고 힘든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학업과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평상시에는 외로운 겨울도 없는 중국유학생들이라 해도 주말에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거나 외로움이 커져서 가까운 주변 친구를 찾게 된다. 이러한 외로움은 한국생활에 적응되어가면서 차차 나아지게 된다.

“처음 왔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친구도 없고 방에서만 살아요... 계속 방에만 있었어요.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왔어요... 혼자 집에 있으려니 좀 힘들어요. 외롭고... 외로워서 부모님도 보고 싶고...” (3학년 여학생, 26세)

이렇듯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를 혼자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도 있으나, 대부분은 친한 중국인 친구들과 연락하여 서로 정서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토요일, 일요일 집에 있을 때 외로워요. 그 땐 여기 있는 친구들과하고 연락하고... 나가서 노는 적도 있고...” (4학년 남

학생, 27세)

“중국친구들과 더 가깝고... 심심할 때나 힘들 때 함께 스트레스 풀죠. 아무래도.. 더 많이 만나는 거도 중국 친구고. 왜냐하면 문화 같은 것도 같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통하는 게 더 많아요. 한 가지만 말해도 “바로 그거?” 할 수 있고” (대학원생 여학생, 28세)

### 미래와 취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을 하는 중국유학생들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들 유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에 한국에 남아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취업을 하려는 학생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이들 학생들은 상당수 자신의 목표를 위해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 중국어 교수나.. 그 쪽으로 나가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오히려 외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잖아요. 지금도 계속 경력 쌓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쌓아놔야 나중에 쓰이니깐... 조금이라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해요.” (대학원 여학생, 27세)

이렇듯 중국유학생들은 미래를 위한 목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지만 이들이 취직

준비를 하게 되면서 종종 자신의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한국에 유학 온 중국학생들은 중국에 남아서 기반을 잡고 있는 또래 친구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볼 때, 현재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는 것 같아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

“나이도 많고...돈은 없으니깐... 중국에선 친구들이 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직위도 다 높은 직위 갖잖아요. 전 아직 학교 다니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 보면 속상해요.” (4학년 남학생, 30세)

이들이 높은 꿈을 가지고 한국의 대학에 와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현실적인 정보를 얻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걱정에서 사로잡히게 된다. 졸업 후 나이 때문에 한국에서의 취업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그들의 생각했던 진로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한국에서의 취업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학 초기의 생각과는 달리, 취업을 힘들어하는 주변 선배들을 보면서 점차 취업에 대한 걱정이 커지게 된다. 이들 가운데에는 한국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진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방향을 수정하면서 진로고민을 하는 학생도 있었으며, 여자가 취업하기 힘든 사회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즉, 한국에 적응되어가면서 중국유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갖는 진로고민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유학생들은 유학생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나 스스로의 기대에 대해 심리적인

압박감을 크게 느끼며 마음이 더욱 더 조금씩 질 수밖에 없다.

### 학교의 제도에 대한 불만

중국유학생들은 한국대학의 캠퍼스,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친절함, 교과내용,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위기상황 처리 등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중국유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불만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에 대한 장학금제도나 기숙사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즉, 이들은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혜택’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불만이 나 서운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장학금 혜택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장학금 규율이 너무 까다로운 것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내며, 중국 유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예전과 비교하여 중국유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관심이 더욱 더 소홀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외국인 학생이 적다보니깐 학교에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많다보니깐... 어쩔 수 없이 그런 면도 있겠지만... 좀... 소홀해진 듯한 느낌... 학교에서 무조건 학생을 끌어들이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학생이 많으면 장학금도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100% 주던 걸 그걸 쪼개갖고 30%로 해서 3등분해서 준다는 거...” (대학원 여학생, 27세)

또한 중국유학생들은 한국대학에 처음 왔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받을 곳 없는 학교의 체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들은 처음의 낯선 환경에서 한국대학생들에게 도움

을 청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한국의 어학원과 정부터 시작한 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데 반해서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 이들은 기본적인 학교생활, 가령 동아리안내나 수업의 특성 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내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학기 초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학기 초 첫날, 바로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리포트가 뭔지도 모르겠는 거 있죠? A4 용지 네 장이라는데 그 A4용지 자체가 어떤 용지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깐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런 사소한 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대학원 여학생, 28세)

“우리는 혼자서 무조건 다 알아서 해야 돼요. 혼자 알아서 하기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깐 처음 와서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고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고... 학교에 도우미가 없어요. 무조건 혼자 다 알아서 수강신청하고 강의실 찾아가고... \*\*\* 대학교는 학생이 원하면 1대 1 도우미가 있다는데.....” (대학원 여학생, 27세)

###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유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에 대해 질적 면담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면접

자료를 통해 파악한 이들의 대학입학동기와 대학생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 본 연구결과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유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게 된 동기를 살펴본 결과, 이들은 대체로 뚜렷한 미래의 목표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한국에 오게 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유학동기가 자신의 발전을 위한 것이냐, 단지 중국을 떠나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냐에 따라서 정신건강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나(허춘영, 김광일, 이장한, 1999), 이민에의 동기가 고국을 떠나기 위한 것이었을 때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Kim, 1988), 유학생생활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중국유학생들의 적응이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 틀림없다. 면담에 참여한 중국유학생 대부분은 성취목표가 뚜렷하며 구체적인 미래계획까지도 설정한 경우가 많아서 매우 적극적인 동기를 가지고 유학생생활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중국유학생들이 한국대학에 대한 만족감을 크게 느끼며(황해연, 2007) 한국대학생에 비해 자아강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유홍예, 2000)와도 맥을 함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유학생들이 한국대학에 진학하게 된 데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의 영향이 컸으며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또한 큰 몫을 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혜영(2003)은 중국 청소년들의 한류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 청소년들이 한류로 인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의사도 높아졌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엄혜경(2003)은 중국유학생들이 한국에 공

부하러 온 주된 동기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중국유학생들이 청소년 시기부터 갖게 되는 한국에 대한 이러한 자연스러운 관심과 더불어 주변인들의 한국에 대한 친숙도 정도가 한국유학을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양 국가 간 문화교류가 더욱 더 확산됨에 따라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중국유학생의 수는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교육관계자들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여 중국유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대학생생활 적응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중국유학생들은 학업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유학생들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본 이익수와 지봉구(2006)의 연구에서 중국유학생들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재정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공부에 대한 중압감’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엄혜경(2003)은 중국유학생들이 주로 리포트제출이나 시험과 같은 학업관련 내용,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들이 학업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11명의 중국 유학생 가운데 9명의 유학생들이 이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중국유학생들은 입국 초기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대화는 되지만 리포트를



쓰거나 필기를 하기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중국과 다른 한국의 커리큘럼이나 공부 방법의 특성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행 지식들도 한국의 공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며, 한국의 교육 스타일에 맞게 자신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낀다. 이러한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장벽은 곧바로 학업에 대한 어려움과 직결되어 본인이 열심히 했다고 느껴도 성적에 대해 걱정하고 자신의 실력에 불만을 느끼며 점차로 자신감을 잃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중국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해야 한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부분 과외나 강사, 식당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사업을 병행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들은 한국의 비싼 물가 때문에 대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학업에 몰입할 시간조차 없게 느끼기도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수업시간에 출석만 하기도 벅찬 경우가 생기고, 이는 또다시 학업에 대한 걱정으로 연결되어 악순환적인 고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중국유학생들이 앞으로 한국에 오게 될 후배 유학생들에게 당부하는 조언들을 살펴 볼 때에도, 한국에서 학업을 가장 열심히 하길 바라고, 반드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즉, 이들 역시도 유학생들에서 언어의 중요성과 학업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깨닫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유학생들의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도록 중국유학생들이 전용으로 들을 수 있는 학과목을 지정하여 개설한다거나 학교 내 교육지원 센터를 통한 집단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러한 배려뿐만 아니라 중국유학생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자신이 한국에 온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위해 효율적인 시간배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들 대부분이 학업에 대한 어려움과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11명의 학생 가운데 6명의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공부할 시간을 거의 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마련에 앞서 중국유학생들 스스로의 당면과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중국유학생들이 한국인 친구와의 인간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유학생들 초기에 그들이 한국친구들과 친해지는 과정은 대부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서로 언어나 공부를 도와주고 서로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점차 가까워지게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한국친구를 사귀는 주된 목적으로 ‘한국어를 잘 하기 위해서’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떠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만으로 인간관계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관계만으로 만족하는 학생들도 있었던 반면에 일부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이들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도움만을 주고받기 위한 인간관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한국친구이든 중국친구이든 간에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가치관 등이 통해야 한다는 것에 공통된 의견을 나타낸다.

한편, 중국유학생들이 느끼는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많은 경우 중국과 한국간의 문화 간 차이로 인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과 한국학생들 간에 사고방식이나 관심사 등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는다. 중국유학생들은 한국에서 강조되어지는 위계질서나 상하관계, 남존여비사상, 예의존중의 가치관에 낯설다. 실제로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중국유학생들은 한국대학생들의 선후배간 위계질서나 존댓말 사용에 대해 큰 거부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특성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유학생들은 한국대학생들에게 ‘집단주의적 문화’로 여겨지는 특성 또한 발견하고 불편해하였다. 그들은 많은 한국대학생들이 ‘우리의 것’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뭉쳐서 다니는 것 좋아하며, 조별 모임을 진행할 때도 공부 이외의 활동에 매번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이들에 무조건 맞추기가 힘들다고 심정을 토로한다. 하정혜(1994)는 정상적인 사람일수록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보다 융통성이 있으며 비정상적인 사람일수록 그러한 정의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 바 있다. 즉, 대인관계에서는 때때로 상호간 패턴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부적응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의 범위가 좁고 완고하여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황해연(2007)은 중국유학생들이 대인관계의 욕구는 있으나 다른 환경으로 인해 대인예민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를 초래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그들이 한국문화와 중국문화의 차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는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 문화와의 차이점을 인식하여 한국의 인간관계에서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러한 중국유학생들의 능력이 정신건강과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중국유학생들은 대학생활을 통하여 소외감이나 무시 받는 감정과 같은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대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유학생들은 대부분 한국학생들을 좋아하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크기 때문에 한국대학생들로부터 느껴지는 무시나 소외는 이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 한국학생들이 중국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중국학생들이 훨씬 한국을 좋게 본다는 선행연구(이정용, 2006)에서도 설명하듯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먼저 성장한 나라이며 일본이나 미국을 경계하고 한국(엄밀히는 조선)을 도와야 한다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국유학생들의 의식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정용, 2006). 한국대학생들이나 교수가 중국농산물이나 경제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거나 무시할 때 그들은 공통적으로 거부감을 심하게 느끼고 불편해하였다. 이러한 인간관계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교내의 상담기관에서는 중국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유학생들만의 인간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나 중국유학생과 한국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며 상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나가며 관계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유학생들은 인간관계 보다는 학업이나 경제적인 스트레스에 보다는 비중을 두어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허춘영, 김광일, 이장한(1999)의 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대인관계 영역임을 보여준 바 있다. 즉, 대인관계 영역은 대학생 생활 적응에서 중요한 영역임에 틀림없다. 이에 대학교내 상담기관에서는 이러한 중국유학생

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그들의 문화적 시각에서 폭넓게 이해하고 대처방법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생활을 하면서 대체로 외로움을 느끼며, 특히 유학생생활 초기에 외로움과 향수병이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낯선 환경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스트레스이며 외롭고 힘든 상황일 것이다. 이에 그들은 대부분 친한 중국인 친구들과 연락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특히 외국생활을 하면서 매우 중요하다. 김재우(2005)와 Ong(2000)는 유학생들이 현지인들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Furukawa(1997) 또한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좋은 유학생일수록 정신질환의 발병률이 감소함을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이 호소하는 외로움이나 정서적인 문제점들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변의 사회적 지지망을 설정해나가는 것은 중국유학생들에게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대체로 주변의 중국인 친구들을 통해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중국유학생들은 미래와 취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중국유학생들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해나가면서 점차로 자신의 현실적 여건을 깨닫게 되고 자기 나이 또래의 주변 친구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취업을 힘들어하는 주변 선배들을 보면서 자신의 취업에 대한 걱정도 커지게 되며, 그들의 진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방향을 수정하면서 다양한 진로고민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유학생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도 더욱 더 클 것이며 이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마음이 더욱 조급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유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보다 직접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익수와 지봉구(2006)가 제시한 바 있듯이, 기업체 연계프로그램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국내에서 인건비 상승 등과 같은 경영악화로 인하여 중국이나 인도 등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중국 유학생들에게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과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상호 동반자적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학생들을 중국 현지에 채용할 때 교육비 감소로 인해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여섯째, 중국유학생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하게 보이는 한국대학의 몇몇 제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중국유학생들은 장학금이나 기숙사제도에 있어서 혜택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까다로운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진다. 또한 유학생생활 초기에 학교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 것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유학생생활에서 사전정보가 생활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Kim, 1988; Hurt & Kim, 1990a, b) 중국유학생들의 한국유학생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학교차

원이나 지역차원의 제도적인 프로그램이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학교적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대학적응상의 스트레스를 질적 방법을 통해 깊이 있게 다루어봄으로써 이들의 스트레스를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적응상의 스트레스와 더불어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유학생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해 본 것이 또 하나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 참여했던 중국유학생 11명의 결과를 전체 중국유학생들의 대학생활 결과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학생들이라고 해도 유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 즉, 나이, 성별, 교육수준, 이주한 기간, 민족적 편견 정도, 직업 유무, 주체성 갈등 정도 등에 따라서 그의 적응양상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Berry, Kim, Minde, & Mok, 1987). 따라서 중국유학생들의 이러한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폭넓게 함께 고려하면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수준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더욱 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중국유학생들의 적응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 사상 최대치 05년도 대비 44.5% 증가한

32,557명”. www.moe.go.kr.

- 김삼화 (2005). 다문화적 맥락에서의 대인관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재한 중국유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우 (200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차별과 대처방식이 문화적응유형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혜경 (2003). 국내 외국 유학생의 한국 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서울 5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홍예 (2000). 한·중 대학생의 성격특성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숙, 김영천 (1999).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교육과학사.
- 이익수, 지봉구 (2006). 중국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29(5), 437-454.
- 이정용 (2006).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의식 비교-자매결연 두 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37, 443-462.
- 조영아, 전우택 (2004). 북한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67-186.
- 조혜영 (2003). 중국 청소년들의 한류 인식과 한·중 청소년 교류 전망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1), 223-247.
- 채서일 (2000).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 학현사.
- 하정혜 (2003). 상담과정에서의 내담자 대인관계 패턴변화에 관한 시계열복수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춘영, 김광일 (1997).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양상에 대한 연구-I: Q 방법을 이용한 조사연구.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

- 소: 정신건강연구, 16, 166-180.
- 허춘영, 김광일, 이장한 (199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정신건강연구, 18, 107-133.
- 홍기원 (2002). 이문화 접촉을 다룬 연구들에 대한 탐색적 개관. 호서대학교 논문집(사회과학편), 21.
- 황해연 (2007). 재한 중국유학생의 대인관계문제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abili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Berry, J. W. (1986). The acculturation process and refugee behavior. In C. L. Williams & J. Westermeyer(Eds.), *Refugee mental health in resettlement countries*(pp.25-37). Washington, Hemisphere.
-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Eds.),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pp.232-253). Newbury Park, CA: Sage.
- Berry, J. W., Kim, U. Minde.,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재인용: 한덕웅, 전경구, 이창호 (1991). 한국 대학의 생활환경 변화와 대학생활 적응. 성균관대 학생지도 연구, 9, 5-169.
- Furnham, A. & Bochner, S. (1986). *Culture shock: Psychological reactions to unfamiliar environment*. London: Methuen.
- Furukawa, T. (1997). Sojourner readjustment: Mental health of international studies after one year's foreign sojourn and its psychosocial correlat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s*, 185, 263-268.
- Hurt W. M., & Kim, K. C. (1990a). Adaptation stages and mental health of Korean male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et Migration Review*, 24, 456-479.
- Hurt W. M., & Kim, K. C. (1990a). Correlates of Korean immigrants' mental health. *JNerv. Ment. Dis*, 178, 703-711.
- Kim, U. C. (1988). *Acculturation of Korean Immigrants to Canada: Psychological and Behavioural Profiles of Emigrating of Koreans, Non-Emigrating Koreans and Korean Canadians* (Ph D thesis). Queen's University Kingston, Ontario, Canada.
- Kurtenbach, E. (1996). *China ignores its cultural revolution*. The Associated Press, July 14.
- Ong, S. J. (2000).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social support scale for sojourners- The Index of Sojourner Social Support(IS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2nd e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Redmond, M. V. (2000). Cultural distance as a mediating factor between stress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151-159.
- Tobin, J. J., & Friedman, J. (1984).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stresses confronting Southeast Asian refugee adolescents. *Journal*

- of *Operational Psychiatry*, 15, 39-45.
- Yeh, C. J. (2003). Age, acculturation, cultura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symptoms of Chinese, Korean, and Japanese immigrant youth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9, 34-48.
- Ward, C. & Kennedy, A. (1993).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A comparison of secondary students at home and abroad. *Intercultural Journal of Psychology*, 28, 129-147.

원 고 접 수 일 : 2007. 12. 10

수정원고접수일 : 2008. 3. 23

게 재 결 정 일 : 2008. 5. 9

## **A Qualitative Study of Chinese Students' Adaptation to Korean College Life**

**Jung Hee Ha**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Chinese students' adaptation to Korean college life. Qualitative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regards to the motivation for college entrance and the stresses incurred during college life for 11 Chinese students who were studying at colleges located in Seoul, Keung- Sang-Buk Do and Chung-Chung-Buk Do. Data from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the theme analysis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asons for college enrollment were (1) preparation for future goals (2) the influence of family or close friends and (3) their interests in and admiration of Korea culture. The stress they experienced in college life fell into six categories, namely, (1) stress about studies (2) financial stress (3) stress in regards to human relationships(4) emotional stress (5) stress in regards to their futures and getting a job (6) stress in regards to their dissatisfaction about the college system. And more concretely, the stress they experienced in college life was found to be comprised of eleven sub-categories. The roles of college and counseling centers and the necessity of systematic preparation for Chinese students and efforts of Chinese students for adaptation were also discussed.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presented.

*Key words : Chines students, adaptation to Korean college life*

〈부록〉 재한중국유학생이 한국의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내용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응답자수	빈도(%)
학업	언어의 어려움	· 언어의 어려움	10/11	91%
		· 학업관련 어려움	9/11	82%
	학문적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	· 커리큘럼의 차이	4/11	37%
		· 공부방법의 차이	6/11	55%
경제	경제적인 부담감	· 비싼 물가로 인한 부담감	9/11	82%
		· 학업과 아르바이트 병행의 어려움	6/11	55%
	생활양식 차이로 인한 어려움	· 경제적 자립으로 인한 부담감	7/11	64%
인간관계	한국인 친구와 친해지는 과정에서 어려움	· 도움을 주고받는 교우관계	5/11	45%
		· 도움교환 이상의 관계형성의 어려움	4/11	37%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	· 사고방식 차이	7/11	64%
		· 말투 차이 · 행동방식 차이	5/11 4/11	45% 37%
정서	소외감과 무시 받는 감정으로 인한 어려움	·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한 서운함	7/11	64%
		·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비하 감정과 태도로 인한 부정적 감정	6/11	55%
	한국생활의 외로움	· 초기 한국 적응에서의 외로움 · 외로움 대처방식	8/11 7/11	73% 64%
미래와 취업	목표를 위한 노력		9/11	82%
	미래에 대한 걱정	· 상대적인 열등감	5/11	45%
		· 자신감 결여	4/11	37%
		· 조급함	4/11	37%
학교제도	지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 장학금 혜택 부족	9/11	82%
		· 도움요청의 어려움	5/11	45%